외교부	보도자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22-521
배포일시	2022.7.12.(화)	담당부서	아세안국
담당자	김동배 / 아세안국 심의관 (02-2100-8441)		

한-메콩 고위관리회의(SOM) 화상 회의 개최

아세안의 신성장 동력인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상생 협력 지속 강화 방안 논의

□ 2022년 「한-메콩 고위관리회의(ROK-Mekong Senior Officials' Meeting(SOM))」가 7.12.(화) 오전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,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쏙 소켄(Sok Soken)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.

※ 메콩지역 5개국 :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태국, 베트남

- 여타 메콩국에서도 차관 또는 국장급에서 참석

□ 우리측 SOM 대표인 정 국장은 우리 신정부가 인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메콩과의 협력을 계속 중시하고 있으며 역내 주요 성장 동력인 메콩 국가들과의 실용적·호혜적인 상생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하였다.

○ 또한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, 공급망 위기, 기후 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-메콩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.

□ 메콩측은 한-메콩 협력 관계가 2019년 정상급 격상,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지속 공고해졌으며, 그간 공적개발원조(ODA) 및 한-메콩 협력기금 지속 증액, 역내 연계성 증진, 포용적 성장 등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, 향후 디지털·에너지 전환, 식량 안보, 관광 등 인적 교류 활성화,

기후 변화 대응 등에서 신규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가자고 하였다.

○ 또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평가하는 한편, 우리 신정부에서도 메콩을 포함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 중시해주기를 희망한다고도 하였다.

□ 아울러 한-메콩 SOM 대표들은 올해 6차를 맞는 한-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 과정에 새로운 요소*를 도입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한-메콩 협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점을 평가하며 메콩국가들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나가기로 하였다.

* ▲메콩 지역 주요 개발 행위자와의 연계사업 발굴 ▲국제기구 참여 장려 ▲사업 당 지원가능 금액 확대 ▲지역 차원의 사업 시행 필요성 강조 ▲사업 전담 직원 요건 도입 ▲사업 공모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

※ 한-메콩 협력기금 : 한-메콩 협력을 강화하고 메콩 5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 및 연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 신설된 기금

- 동 기금은 우리 정부 공여로 운영하며 2012-2021년까지 총 1442만불 공여 (2022년 500만불 공여)

□ SOM 대표들은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은 「2021-2022 한-메콩 교류의 해」 계기 진행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한-메콩 국민들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 및 한-메콩 협력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다.

※ 「2021-2022 한-메콩 교류의 해」 기념 행사 : 한-메콩 협력 학술 세미나,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, 한국어 말하기 대회, 라디오 퀴즈대회, 우정콘서트, 논문 공모전 등

□ SOM 대표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한-메콩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, 한-메콩 외교장관회의(8월) 및 정상회의(11월)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.

붙임 : 2022년 한-메콩 고위관리회의 사진. 끝.